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 ②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 ③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⑤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정답: ④

* 청동기 시대의 생활모습

청동기 시대의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고 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인구가 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으며 국가의 성립까지 이어졌다(군장국가). 이러한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껌묻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고인돌은 많은 인원을 동원시킬 수 있는 계급의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로는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된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흙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의식용으로 사용된 거친무늬 청동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고조선과 관련된 유물), 민무늬 토기(대표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집터, 돌널무덤과 독무덤 유적, 비파형동검, 송국리식 민무늬 토기)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여주 혼암리(탄화미 발견), 서천 화금리 유적(탄화미 창고 발견), 울산 검단리(환호형 촌락터) 등이 유명하다.

청동기인들의 주거 형태는 신석기 시대와 같은 움집이지만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① 구석기인들은 이동에 편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② 생산력이 미약한 구석기~신석기인들은 계급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③ 철기 시대에 들어서서 경남 사천 늑도의 반량전(진), 경남 창원 다호리의 오수전(한), 경남 김해 패총의 화천(신) 등의 중국 청동 화폐가 나와서 중국과의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신석기인들은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었다.

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연왕(燕王) 노관이 현(鮮)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가)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상투를 들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진(秦)의 옛 땅인 상하정에 살았다.

— 『사기』 조선열전 —

— <보기> —

- ㄱ.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 ㄴ.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 ㄷ.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 ㄹ.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땅을 빼앗겼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위만에 대하여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비파형동검, 미송리식토기, 북방식 고인돌)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BC 3C 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하다가 bc 283년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고조선의 서방 2천리를 상실하면서 영토를 축소당하여 고조선의 세력은 일시 약화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고조선의 수도가 요하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였으며, 연의 철기제작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진.한 교체기인 기원전 2세기경, 서쪽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유이민 세력인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시기에 철기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진번, 임둔 등 주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 한반도 남부 지방에 위치한 진의 여러 나라와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부강해졌다.

고조선이 강성해지면서 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커가자, 한은 대군을 보내어 수도인 왕검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막강한 한의 대군을 맞아 1년 동안 버티면서 잘 싸웠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 서는 본채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婿屋)이라 부른다.

- 『삼국지』 동이전 -

(나)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꺾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서 뼈만 추려 꺾 속에 안치한다.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꺾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를 꺾어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든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가) - 대가들이 사자, 조의 등을 거느렸다.
- ② (가) - 읍락 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③ (나) -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 ④ (나) -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다.
- ⑤ (가),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정답: ①

* 고구려와 옥저

(가) **고구려**: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편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나) **옥저**: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②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③ 부여와 고구려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다(1책12법).

④ 삼한 중 변한과 이를 계승한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왜와 한군현에 수출을 하였다.

⑤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란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제정분리).

4.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고령군은 본래 (가) (으)로 시조 이진아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에 걸쳐 520년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고령)에 이르고 있다.

-『삼국사기』-



정답: ①

* 대가야의 문화유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대가야는 시조 이진아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백제도 위축됨)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소국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며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괘빈동 등 고령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금동관, 판갑옷과 투구 등 많은 유물들은 가야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대가야)

② **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288호)**: 충남 부여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 목탑 자리에서 출토. 사리를 보관한 이 사리감에는 20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사리를 봉안한 연대와 공양자가 분명하고 사찰의 창건 연대가 백제 때인 567년(위덕왕 14)으로 밝혀졌다.

③ **천마총 천마도(국보 207호)**: 벽화가 아닌 말의 배가리개에 그린 그림으로 신라의 힘찬 화풍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④ **연가7년명 금동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불상.

⑤ **정혜공주묘 출토 돌사자 석상**: 중국 길림 돈화현에 소재한 발해 문왕 2째 딸의 무덤에서 출토. 힘찬 고구려의 기상이 보인다.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겨울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流矢]에 맞아 이 달 23일에 서거하였다. 고국(故國)의 들에 장사지냈다.

- 『삼국사기』 -

(나) 가을 7월에 고구려 왕 거련(巨連)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 왕 경(慶)이 아들 문주(文周)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협력되었고, 경 역시 피살되었다.

- 『삼국사기』 -

- ①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내었다.
- ② 당이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③ 이문진이 유기를 간추린 신집을 편찬하였다.
- ④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 ⑤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정답: ④

* 고구려 발전의 연대기(371~475)

태조왕(53~146) 때에 고구려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동)옥저를 정복하였고(56), 요동으로도 진출을 꾀하여 선비족과 함께 요동 태수 채풍을 죽이기도 하였다(121).

고구려는 2세기 후반 고국천왕(179~197) 때에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계승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으며, 국상을 파소의 건의로 진대법(194)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동천왕(227~248) 때에는 요동을 놓고 위나라와 갈등하며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으로 인한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도 있었다(244~245).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300~331) 때에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

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331~371) 때에 서북쪽의 전연 모용황의 수도 침략(342)과 남쪽의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때의 내정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391~412)은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거란과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고 동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켜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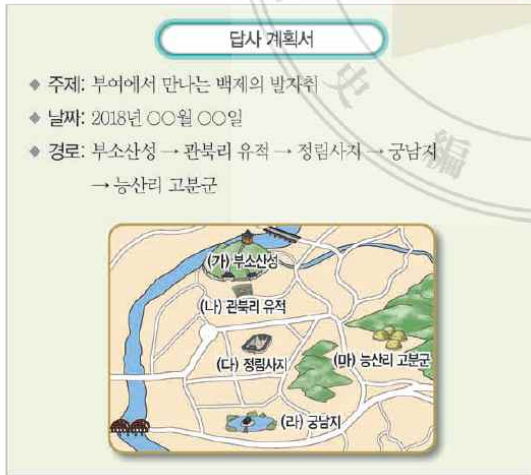
장수왕(413~491)은 414년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하여 부왕의 업적을 기리고 평양천도(427)와 남진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개로왕(부여경)의 백제 수도 한성을 급습하여 함락시키고(475),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②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668)

③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유기가 편찬되었으며, 영양왕(590~618)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6.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다.
- ② (나) -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굴되었다.
- ③ (다) -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④ (라) - 귀족들의 놀이 도구인 나무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 ⑤ (마) -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정답: ③

* 부여의 백제 문화유산

(가) **부소산성**: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를 수호하는 중심 산성으로 주위의 보조 산성인 청산성·청마산성과 함께 도성을 방어하는 구실을 했으며, 평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비원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관북리 유적**: 왕궁지가 있는 곳으로 동서 25m, 폭 9~10m의 교차하는 도로가 있다. '前部'銘의 표석이 출토되어 백제 수도 오방제와 관련된 條坊制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공방시설이 있어 기와와 도기 등을 왕실, 관청 등에 공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정림사지**: 국보 9호인 5층 석탑이 소재하고 있다. 이 탑은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과 함께 7세기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이다.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라) **궁남지**: 무왕이 건설한 별궁 연못으로서, 궁남지의 조경 기술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

(마) **능산리 고분군**: 1호분에서 사신도 벽화가 발견되었고, 2호분은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고, 능산리 절터에서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발견되었다.

① 부여 백마강 변의 호암사지에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정사암)가 있다.

④ 경주 월성에 소재한 안압지(월지)는 신라 별궁(동궁)의 연못으로 통일신라의 뛰어난 조경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안압지의 연못, 인공섬, 구름과 건물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꾸며졌으며 큰 연회가 열렸다. 특히 안압지 출토 14면 주사위(酒令具)는 8세기 통일 신라 시대로 추정되며 당시 상류층의 음주 놀이 문화를 알 수 있다.

⑤ 공주의 송산리 7호분이 이른바 무령왕 부부의 무덤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출토되었다.

7.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역사 인물 카드

- 생몰: 595년~673년
- 기제: 수로왕의 12대손
- 생애
 - 화랑이 되어 용화 향도를 이끌
 - 비담과 염종의 반란 진압
 - 무열왕의 딸인 지소와 결혼
 - 삼국 통일에 기여



- ①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②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다.
- ③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④ 황산벌에서 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 ⑤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하였다.

정답: ④

*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에 대하여

금관가야 왕족 출신의 장군 김유신(595~673)은 화랑으로 유명하며(용화향도 통솔) 나당 동맹을 체결하며 외교를 이끈 김춘추(무열왕)와 함께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다.

647년 선덕여왕 임종 직전 “여왕은 정치를 잘 할 수 없다”며 상대등 비담 등 귀족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고, 654년 진덕여왕이 죽으며 상대등 알천이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알천이 나이와 능력없음을 이유로 김유신과 연계된 김춘추(무열왕)에게 왕위를 양보케 할 정도로 군부와 신귀족의 리더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신라군 뿐만 아니라 많은 화랑을 이끌고 삼국통일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백제 계백의 5천 결사대에 맞서 반굴, 관창 등의 화랑을 이끌고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이 유명하다.

① 김유신의 둘째 아들 김원술은 나당 전쟁 중 석문 전투(672)에서 비장으로 참여하였으나 패배하였고, 장수들이 죽음에도 아들이 살아오자 부모의 진노를 사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김유신 사후(死後) 매소성 전투(675)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부모에게 용납 받지 못함을 한탄하며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

② 김유신의 조부 김무력은 진흥왕 때에 관산성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554)

⑤ 백제의 장군 흑치상지는 백제 멸망(660) 후 미천성에서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키어 소정방의 당군을 격퇴하기도 하였으나, 내분으로 주류성에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도침을 부여풍이 죽이는 내분을 보이자 당에 투항하였다(663).

8.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당 현종은 (대)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태복원의정 김사란을 시켜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의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 마침 신이 현하고 달씨가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죽으니, 전공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다.

— 『구당서』 —

- ①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②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철리부 등 동북방 말갈을 복속시켰다.
- ④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 ①

* 발해 무왕 대의 역사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고왕, 698~719)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연호:천통).

2대 무왕(719~737, 대무예, 연호:인안)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무왕은 동생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 말갈을 공격케 하였으나, 대문예는 이를 거부하고 당으로 망명하며 양국 관계는 파탄이 났다. 무왕은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등주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이 때 신라는 당의 사주를 받아 김사란을 시켜 발해 남부 국경을 공격하였으나 추위로 실패하였다(733). 결국 발해는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3대 문왕(737~793, 대흠무, 연호:대흥, 보력) 때에는 대내적으로 관료조직이 확충되고(3성 6부) 왕권이 강화되자, 이를 바탕으로 황제를 뜻하는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불교의 전륜성왕의 이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당이 안사의 난(755~762)으로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756), 동경 용원부(785)로 옮기었다. 이는 송화강 하류의 철리부 등의 동북방 말갈 부족들을 복속시켜 배후지의 안전은 확보되며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10대 선왕(818~830, 대인수, 연호:건흥)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로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 때의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에서 압박해오고, 발해 내부 귀족들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거란 야율아보기의 침략을 받아 15대 애왕(대인선) 대에 멸망하였다(926).

④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신보(보병).항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⑤ 고구려 영류왕 때에 천리장성 수축을 주관하던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자신을 제거하려는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은/는 열 곳의 절에서 교(敎)를 전하게 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남악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계도서인 (法界圖書印)을 짓고 아울러 간략한 주석을 붙여 일승(一乘)의 요점을 모두 기록하였다. 법계도는 총장(總章) 원년 무진(戊辰)에 완성되었다.

- 『삼국유사』 -

- ①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②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 ③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전파하였다.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⑤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 의상(625~702)에 대하여

신라 진골 출신의 의상(625~702)은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창설하고 중국과 다른 독특한 화엄사상을 전개하였다(해동 화엄종). 즉, ‘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으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여 통일 직후 신라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낙산사,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① 선덕여왕 때에 당에서 귀국한 자장 율사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하여, 백제 장인 아버지를 초빙하여 지어졌다(643~645),

② 원효(617~686)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③ 고려 광종 때 균여(923~973)는 보현십원가라는 향가를 지어 불교와 세속간의 경계를 없애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④ 통일신라기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1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3월에 웅원주 도독 현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세위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완산·청(靑)·사벌의 4개 주 도독과 국원경·서원경·금관령의 사신(仕臣),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해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나) 진성왕 3년,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삼국사기』-

- ①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②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③ 병부 등을 설치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⑤ 관리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정답: ④

* 김현창의 난(822) ~ 원종·애노의 난(889) 사이의 역사적 사실(신라 하대)

(가)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원성왕계)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웅주(공주) 도독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켜(825)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하였고, 뒤이어 김현창의 아들 김범문이 (북)한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825), 모두 실패하였다.

(나) 신라 말 진성 여왕(887~897) 때에 중앙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나자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였다. 이제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① 진흥왕(540~576)은 자랑스런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하여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 거칠부를 시켜 역사서인 국사(545)를 편찬케 하였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

②, ⑤ 통일 후 신라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으며,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③ 법흥왕(514~540)은 상대등, 병부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520),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④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며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왕권 다툼에 간여하여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839). 문성왕 때에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한 진골 귀족들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였다(846).

11.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公山)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숭겸이 죽고 모든 군사가 패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삼국유사』—

(나)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려 천수(天授)라 하였다.

—『고려사』—

(다) 왕이 삼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선군으로 진격하였다. 신검이 군대로 막아서니,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고려사절요』—

(라)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폐침(嬖臣)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 와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요청하였다.

—『고려사절요』—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라) - (가) - (다)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③

* 고려 건국의 연대기

상주 출신의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신라 왕족의 후예인 궁예는 처음에는 복원(원주) 지방의 양길 휘하의 도적 집단에서 성장하여 세력이 커지자 독립하여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로 바꾸었다(904), 다시 태봉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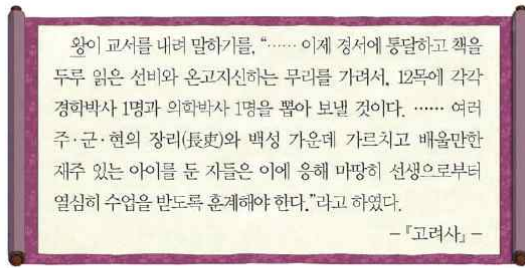
궁예를 몰아 낸 뒤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빌려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918),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태조는 궁예와 달리 신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내세워,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를 돕다 927년 공산(대구)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을 막아냄으로써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930년 고창(안동) 전투에서 후백제를 크게 격파하여 승기를 잡고, 후백제에 내분(견훤의 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이 일어나 견훤이 귀순하자, 후백제를 정벌(일리천 전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12.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③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정제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 고려 성종의 업적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 중앙집권적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983)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국자감을 정비(사서에는 992년 성종 때에 창설되었으나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보는 거의 통설)하고, 지방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987).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하였다.

① 고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② 고려 광종(949~975) 대에 양인으로 노비된 자를 조사하여 풀어주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956)

③ 고려 공민왕(1351~1374)은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케 하고(1366),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⑤ 고려를 세운 태조(918~943) 왕건은 ‘정제’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13.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남쪽에서, 적(賊)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사미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였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현(州縣)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
- 『고려사절요』 -

○ 최광수가 마침내 서경에 응겨해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흥복병마사(高句麗興復兵馬使) 금오위십상장군(金吾衛十上將軍)이라 자칭하고 막료들을 임명하여 배치한 후 정예군을 모았다.
- 『고려사』 -

945	1009	1126	1170	1270	1388
(가)	(나)	(다)	(라)	(마)	
왕규의 난	강조의 정변	이자겸의 난	무신 정변	개경 환도	위화도 회군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 무신정권기 농민들의 봉기

무신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무신정변(1170)이 발발하여 의종이 폐위되고 무신들에 의해 즉위한 명종은 실권없이 지내자, 문신 출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정중부, 이의방 정권을 타도하고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고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1173). 서경 유수 조위총 역시 무신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중부·이의방을 타도하여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1174~1176, 1179년 재봉기). 이 때에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주현군의 병사인 죽동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관노 및 지역의 주민이 가세해 일어나 항쟁한 전주 관노의 난(1182)이 있었고, 경주 주변 지역인 운문(청도), 초전(울산)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신라 부흥 운동을 부르짚으며 봉기하였다(1193).

봉기를 일으킨 이들은 지방관의 탐학을 국가에 호소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신라 부흥 운동, 고구려 부흥 운동(1217, 최광수의 난), 백제 부흥운동(1237, 이연년 형제의 난) 같이 왕조 질서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실패하였다(1198).

14.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은 (가) 이/가 일찍이 발해와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매우 무도하여 천천 관계를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교빙을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 『고려사』 -

- ①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창설하였다.
- ②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③ 진관 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 ④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정답: ①

* 고려의 거란과의 항쟁

916년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후 초기에는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위하여 태조 대에 낙타를 선물하였으나 태조는 동쪽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적개심으로 낙타를 만부교 다리에 묶어 굶겨 죽여 거란을 자극하였다(942).

또한 정종(945~949) 대에는 거란에 포로가 되었다 재능을 인정받아 관리로 발탁된 최광윤이 사신 편으로 거란의 침략성을 알려 왕에게 전달하여,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광군 30만이 조직하였다(947).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거란은 강조의 정변(1009)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삼아 2차 침입(1010)을 하였고,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 때 양규는 흥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후 고려는 입조와 강동6주 반환에 응하지 않자 거란은 소배압을 시키어 3차 침입을 하였다(1018).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맞서 싸워 살아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② 고려 말 최무선은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의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였다. 이에, 고려는 화통도감을 설치하고(1377)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하여 나세 등과 함께 진포(금강어구)에서 왜선 500척 격멸하였다(1380).

③ 세조 때에 여진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각 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 병사가 관할 지역 군대를 장악하고, 병영 아래에 몇 개의 거진을 설치하여 거진의 수령이 그 지역 군대를 통제하는 진관 체제를 실시하였다(1457)

④ 임진왜란 중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양성을 위해 상비군인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⑤ 고려 무신정권기 최우(1219~1249)는 기존의 도방 외에, 야별초에서 분리된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된 삼별초라는 사병을 새로 두었다.

1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가) 이/가 송·요·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의 일부입니다.



- ①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주도하였다.
- ③ 정혜사를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 ④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 ⑤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정답: ①

* 의천(1055~1101)에 대하여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원효의 통합 불교 사상(일심, 화쟁)을 계승하여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일찍이 송나라에 유학하여 화엄학과 천태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다.

이후 흥왕사(개경)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개경)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또한 의천은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고려는 물론이고 송, 요, 일본 등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흔히들 속장경이라 함)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1086)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1091~1101).

개인적 저술로는 현존하지 않는 '천태사교의' 주(註)와 낙장본으로 일부 존재하는 '(신집)원종문류', '석원사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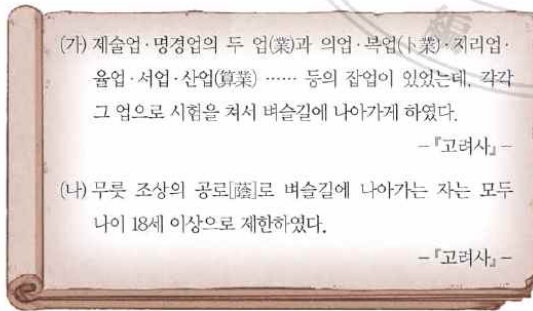
②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천태종 신앙결사체인 백련결사를 조직하였다(1216).

③ 무신정권기 혼탁한 불교계를 정화시키고자 지눌(1158~1210)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禪)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정혜사(->수선사)를 결성하였다.

④ 지눌의 제자인 혜심(1178~1234)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⑤ 고려 후기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16. (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 ㄱ. (가) -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 ㄴ. (가) - 향리의 자제가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 ㄷ. (나) -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 ㄹ. (나) -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고려의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고려의 관리는 크게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등용되었다.

고려 광종 때에 중국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 건의에 의해 실시된 과거 제도(958)는 문과인 제술업, 명경업과 잡과로 나뉜다.

제술업(진사과)은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업(생원과)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명경, 제술업은 초기에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인 향공이 직접 본과거에 응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규정이 정비되어 중기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국자감 입학 시험)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도록 법제화 되었다.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다. 따라서 지방 향리의 자제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가 되어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잡업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고, 무과는 예종 때 무학재(1109)가, 공양왕(1390) 때 무과가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의미는 없었다. 승과는 교종선과 선종선 양과가 있어 합격자는 승계와 토지를 받았다.

고려는 과거 제도 외에도 공신(공음)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문음)의 자손(아들, 내외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음서는 주로 새 국왕의 즉위나 복위, 왕과 왕태후, 세자의 책봉, 기타 다른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고, 음관을 제수받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고, 10세 미만이 음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최저 5세도 있음). 또한 음서로서 관리가 된 자가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자보다 많았고 관직에 조기에 나갈 수 있으며 한품(限品)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고위 관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 조선의 과거 응시 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무과나 잡과는 가능).

17.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2점]

특별 사임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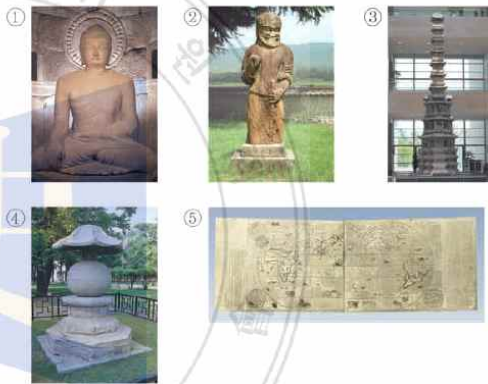
문화유산을 통해 본 고려와 몽골의 교류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와 몽골 간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특별 사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 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 장소: △△박물관



정답: ③

* 고려와 몽골과의 교류 관련 문화유산(경천사지 10층 석탑)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탑인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의 탑으로 원의 석탑을 본떴으며(탑 상륜이 원에서 유행하던 라마불탑의 수법) 조선 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졌다.

3단으로 된 기단은 위에서 보면 아(亞)자 모양이고, 그 위로 올려진 10층의 높은 탑신 역시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아(亞)자 모양이었다가, 4층에 이르러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탑의 1층 몸돌에 1348년(충목왕 4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었던 것을 되돌려 받아, 1960년 경복궁에 복원하여 세웠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놓았다.

① **석굴암 본존불(국보 24호)**: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 균형미가 뛰어난 불상 중 하나로, 석굴암 주실의 중앙에 있는 본존불은 균형잡힌 모습과 사실적인 조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② **경주 괘릉 무사석**: 코가 크고 눈이 움푹 들어갔으며 수염이 많아 서역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국보 102호)**: 고려 목종 때의 승려인 흥법국사의 부도로, 충북 증원의 정토사 터에 있던 것을 1915년에 경복궁으로 옮겼다. 1017년경에 만들어졌으며, 8각 원당의 기본형을 잃지 않으면서 일부에는 새로운 기법이 사용되었다. 즉 탑신이 원구형이 된 것은 다층석탑의 복발형(覆鉢形)에서 얻은 기발한 의장으로 보인다.

⑤ **곤여만국전도(1602)**: 명나라 말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전 세계 5대주를 망라한 세계지도. 중국을 통해 조선 후기에 전해짐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변화가 생기며 당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

18. (가) 화폐가 발행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이르기를, “금과 은은 천지(天地)의 정수(精수)이자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에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 몰래 주조하고 있다. 지금부터 (가)에 모두 표자를 새겨 이로써 영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어기는 자는 엄중히 논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때에 비로소 (가)을/를 화폐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 제도는 은 1근으로 만들어 본국의 지형을 본뜨도록 하였으니,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

- ① 왜관이 설치되어 일본과 무역하였다.
- ②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 ③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 ④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 ⑤ 중강 개시와 중강 후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정답: ②

* 은병이 발행되던 고려 시대의 경제상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비정기적인 시장이 있어 도시 거주민이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한편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저포)를 사용하였다.

① 조선은 국초 태종 때(1407)부터 왜구와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 등에 왜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③ 조선 시대인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사에서 주로 활동하는 상인인 보부상들이다. 이들은 장날이 순환하는 것에 따라 장사를 하면서 각 장시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광산 개발도 활발해졌는데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⑤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중강, 회령, 경원)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중강, 책문, 단속사)가 이루어졌다.

19.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정(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의 일부로 이 왕 때 주자소에서 제작한 계미자를 이용하여 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왕 때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 ① 전통 한의학술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 ②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 ③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 ④ 봉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였다.

정답: ②

* 계미자를 주조시킨 조선 태종의 업적

두 차례(1398, 1400)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개국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재위:1400~1418)은 통치 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평의사사와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와 두면서 그 정치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치 업무를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게 하는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문하부를 혁파할 때 산하의 하급 관료인 낭사는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자유롭게 비판하게 하였다.

한편, 왕실 외척과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태종은 국가의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으며, 지방 권세가를 통제하여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문화적으로는 조선 시대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던 관청으로서 1403년 주자소를 설립하여 계미자를 주조시켰고, 김사형·이회 등을 시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를 만들었다.

① 광해군(1608~1623)은 임진왜란으로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이를 방지하고자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1610)을 편찬하게 하였다.

③ 성종(1469~1494) 대에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반포되어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

④ 영조(1724~1776)는 자신의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 봉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1742).

⑤ 세종(1418~1450) 때에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칠정산 내·외편이 만들어졌다. 특히 칠정산 내편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20.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직지심체요절의 인쇄 과정을 파악한다.
- ② (나) - 팔상전에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 ③ (다) - 팔만대장경판의 보존 방식에 대해 조사한다.
- ④ (라) -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경위를 알아본다.
- ⑤ (마) - 주심포 양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다.

정답: ②

* 각 지역 주요 사찰들에 대하여

(가) **청주 흥덕사지**: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계송(偈頌)·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을,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로 간행하였다.

(나) **논산 개태사**: 고려의 태조 왕건이 936년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후백제에게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거대 사찰. 직경 289cm, 높이 96cm, 둘레 910cm의 대형 솔주각이 이를 상징한다.

(다) **합천 해인사**: 신라 말 애장왕 때에 순응과 이정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고려 창건당시에 주지인 희랑이 도움이 커 보답으로 고려의 국찰이 되었다. 항몽 과정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강화도 선원사의 장경판(국보 32호)이 조선 태조에 의해 1398년 이곳 장경판전(국보 52호)으로 이전 보관되어 호국신앙의 요람이 되었고 법보(法寶) 사찰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라) **군위 인각사**: 선덕여왕 때인 643년에 원효가 창건한 사원.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이 곳에서 삼국유사(1281)를 저술하였다.

(마) **안동 봉정사**: 고려 시대에 주심포 양식(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음)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 중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국보 15호)은 1363년 중수된 기록이 있어 13세기 초 건립이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다.

②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1605년에 지어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묘사한 불화 소재한 곳이다.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 화엄사 각황전(1702, 국보 67호) 등과 공통적으로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21.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 ②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 놓았다.
- ③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 ④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 ⑤ 일제에 의해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정답: ①

* 종묘(宗廟)에 대하여

조선의 태조(재위: 1392~1398)는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1394), 각종 공사가 잇따라 시행되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조정과 시장 또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다. 4대문과 4소문을 포함한 성곽은 궁궐과 종묘가 완공된 이후에 건설되었다.

가장 먼저 서쪽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을 완공하고, 정궁인 경복궁(1395)을 세운 뒤, 그 동쪽에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는 종묘(宗廟)가 완성되었다(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종묘는 다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49위를 모셔 제사를 드리는 정전(건물 내부에 모실 신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옆으로 증축하여 가로로 긴 건물 형태가 됨)과, 주로 추존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32위의 신주를 모신 영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② 성균관이나 사학·향교 등의 관학 기관은 문묘(공자를 모시는 곳) 및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소재한 대성전(大成殿) 영역과 명륜당(강당) 및 학생들이 기숙하는 동재(東齋: 양반)·서재(西齋: 평민)가 있는 명륜당(明倫堂)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③ 선농단(先農壇): 농경과 관련된 신인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임금이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⑤ 일제는 총독부 청사로 본래 1907년 건립된 남산 왜성대의 통감부 청사를 계승해 쓰다가, 1926년 경복궁의 일부를 헐어내고 새로 지었다. 해방 후 한국정부의 청사(중앙청)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철거되며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섰다(국립중앙박물관도 현재 용산으로 이전)

22.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포도대장 김순고가 왕에게 아뢰기를,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꺽정의 일당인 서인이란 자가 이름을 얻가이로 바꾸고 승례문 밖에 와서 산다고 하므로, 가만히 엿보다가 잡아서 법한 것에 대하여 심문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 대장장이 이춘동의 집에 모여서 새 봉산 군수 이흠래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 속히 달려가서 봉산 군수 이흠래, 금교 찰방 강여와 함께 몰래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① 청의 요청으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②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 ③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④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정답: ③

* 임꺽정이 활동하던 명종 대의 역사적 사실

명종(1545~1567)은 이복형인 인종(1544~1545)이 1년 만에 죽자 어린 나이(12세)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종의 외척인 소윤(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대윤(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최대 규모의 사화인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림이 연루되어 큰 희생이 있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 승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교 양종 부활(1551) 및 도첩제와 승과가 부활되었다(1552).

그러나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세와 탐욕에 맞물려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며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예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62년 처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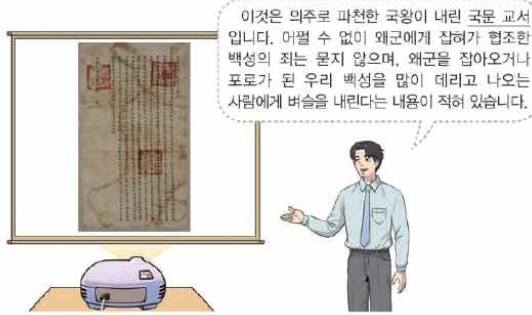
① 효종(1649~1659) 대에 러시아가 흑룡강 쪽으로 청을 침공해 오자,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나선정벌).

② 세종(1418~1450) 대에 최윤덕과 김종서를 시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각각 4군과 6진을 개척하여 오늘날의 우리 영토를 만들었다.

④ 숙종(1674~1720) 대에 인현왕후의 복위와 장희빈의 강등과 관련이 있는 갑술환국(1694)을 통해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노론,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⑤ 선조 대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23. 밑줄 그은 '국문 교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순신이 명량에서 왜의 수군을 대파하였다.
- ②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 ③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 ④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세전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 ⑤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3포 왜란이 일어났다.

정답: ①

*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의주파천 이후)

1592년 4월 14일, 정명가도를 내걸고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첨사 정발과 부사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중앙에서는 선봉으로 순변사 이일을 보내었으나 상주에서 패퇴하자, 충주에서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복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4.28). 왜군이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4.30~6.22). 왜군은 6월에 평양과 함경도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5.4),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한산 대첩, 1592.7)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워 이겼고,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 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렬히 전사하였다(1592.10).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요청한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며 탈환했으나(1593.1.6), 벽제관에서 일본군은 명군을 대파하여(1593.1.27)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행주 대첩, 1593.2) 위기에서 벗어나 4월 말에는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고 (한성 복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난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임진년과 달리 화의 기간에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1597.9.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침).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랑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며 (1598.11.19) 전쟁은 끝이 났다.

③, ④, ⑤ 세종 대에는 왜구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종무를 시키어 이들의 소굴인 쓰시마섬(대마도)을 토벌하였고(1419), 또한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3포를 개방(1426)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전선 50척, 세사미 200척 이내). 그러나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중종 대에 삼포왜란이 발발하였다(1510).

24.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田池)를 얻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전(田田)의 법을 시행하여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여전이라 하는가? 산골짜기와 천원(川原)의 형세로써 나누어 경계로 삼아 그 안을 여(隅)라 한다. …… 여에는 여장(閭長)을 두고 무릇 한 여의 전지는 그 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함께 경작하게 한다. …… 추수 때에는 …… 그 양곡을 나누는데, 먼저 국가에 세를 내고 그 다음은 여장의 봉급을 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정부에 의해, 일한 만큼 (여민에게) 분배한다.

- 「전론」 -

- ①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②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 ③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④ 경세유표를 저술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⑤ 북학의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정답: ④

* 여전제를 주장한 정약용에 대하여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1762~1836)으로, 신유사옥(1801)과 관련되어 18년 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형법 개혁에 대한 '흠휼신서' 등으로 대표되는 500여 권의 많은 책을 저술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산천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한 마을 단위인 여(隅) 단위로 여장의 지휘 하에 주민들이 공동경작하여 생산의 1/10세를 국가에 내고 여장의 녹봉을 떼어준 후 나머지를 노동날짜에 따라 나누어주자는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전(私田) 8결과 국가가 소유한 공전 1결의 형식을 취하여 제도를 운용하자자는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양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여 서양 선교사가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도 설계하였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역사 지리서로는 '아방강역고'를 저술하였다.

①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1731~1783)은 과학연구에 힘써 김석문과 함께 의산문답에서 지전설과 지구 구형(球形)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 등을 내놓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주장이었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② 19세기 말 고종 대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③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1694~1755)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⑤ 중상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특히 우물물 비유를 통하여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25. 밑줄 그은 '대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반인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한다더군.

그렇다면 세입이 감소할
텐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

<보기>

- ㄱ.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ㄴ. 어염세, 선박세를 국가 제정으로 귀속시켰다.
- ㄷ. 선무군관에게 1년에 1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 ㄹ. 수신전, 휴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군역의 개혁 군역법(1750)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인징, 족징, 백골징포, 향구첨정 등)을 시정하려는 구전론(신분에 구별없이 일정한 연령층의 모든 남녀에게 포전 징수), 결포론(토지 단위로 군포 부과), 호포론(가호 단위 부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유포론(군역에 빠져있는 자를 색출하여 군포 부과)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양역변통론), 마침내 군역법(군포 감필론)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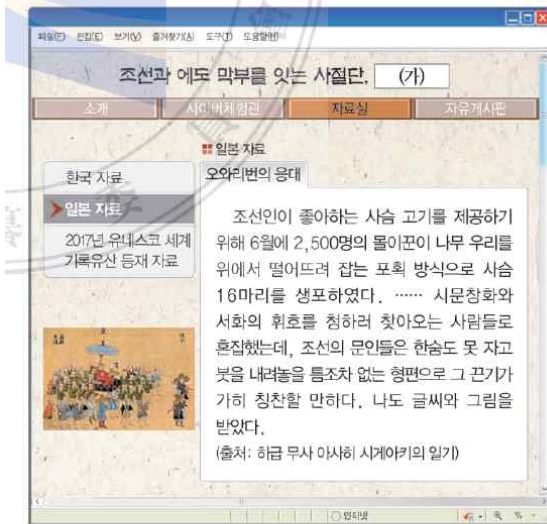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잉류 지역 제외),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 고종은 대한제국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 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1391)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법의 주된 토지인 과전은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신전과 수신전, 휴양전 등 일부 세습화 경향이 나타나며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에 세조는 직전법(1466)을 제정하여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고 토지 지급액을 감소시키며 수신전, 휴양전 등을 폐지되었다

2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 ② 다녀온 여정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 ③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이 있었다.
- ④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 ⑤ 19세기 초까지 파견되어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⑤

* 조선 후기 대일 사절단 통신사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곧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한편,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빈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①, ③ 조선은 명·청으로 매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냈다. 특히 명에는 정기적으로는 하정사·성절사·천추사·동지사, 부정기적으로는 사은사·주청사·진하사·진주사 등을 사절로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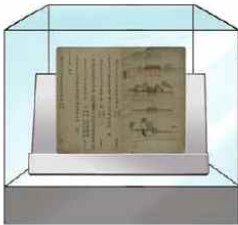
② 대청 사신(연행사)의 기행일기를 연행록이라 하고 홍대용, 박지원의 작품이 유명하다. 좁은 의미의 연행록은 1791년 문인 김정중이 사행 일원으로 따라가 적은 연행록이 유명하다.

④ 조선 초기 세종 대에 여진 사절단을 대접하는 곳으로 서울 동대문 인근에 북평관(야인관)을 설치하여 조공 무역을 허락하였다(1438).

27.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상대계첩(霜臺契帖)은 (가) 소속 감찰직
관원들의 계도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그려져 있고 당시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란 서릿발 같은 관리 감찰
때문에 붙여진 (가)의 다른 이름으로, 그 수장은
대사헌이라고 하였습니다.



- ① 사림의 건의로 종종 때 폐지되었다.
- ②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 ③ 국왕의 친위 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되었다.
- ④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 ⑤ 5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 언론·감찰 기관 사헌부

고려의 전곡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기
관인 삼사와는 달리, 조선 시대의 삼사인 사
헌부(장관 종2품 대사헌, 주로 백관 감찰, 기
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담당), 사간원(장
관 정3품 당상관 대사간, 주로 국왕에 대한
간언,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담당), 홍문관
(장관 정2품 대제학, 집현전을 계승하여 주
로 왕의 자문 및 경연 주관, 경서·사적의 관
리, 문한(文翰)의 처리)은, 관리의 비리를 감
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
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양사라 하여 대간을
이루고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였는데, 서경
이란 5품 이하 관료에 대한 임면과 법령 개
폐시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 간쟁은 왕께 충
언(간언)을 하는 것이고, 봉박은 국왕의 부당
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절대 권력을 비
판하는 기능으로 인정되었다.

즉,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
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
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
인 모습이다.

①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인 소
격서는 조선 중종 대 사림의 중심 인물 조광
조 등의 건의로 한 때 혁파되기도 하였다.

②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맡은 국왕의 비서기
관이었다.

③ 정조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1793, 도성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
침하였다.

28. 다음 검색창에 들어간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사회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 ② 청의 정세 변화를 계기로 북벌을 주장하였다.
- ③ 반계수록에서 토지 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 ④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 ⑤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다.

정답: ②

* 남인 윤휴(1617~1680)에 대하여

서경덕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윤휴는 대학, 중용을 비롯하여 효경, 주례 등의 경전에 대해 독자적인 해석을 하였다. 즉 그동안 내려오던 주자의 주(註)를 기본으로 하는 성리학적 해석을 부정하고 주자의 주를 탈피하는 성리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본래 당색이 분명치 않았으나 현종 때의 예송에 참여하면서 남인의 거두로 활약하였다.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북벌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한 남인들의 도체찰부 확대를 서인들이 역모로 모는 경신환국(1680)이 벌어지며 사형을 당하였다.

① 성종 대 영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1431~1492)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 마치 세조에 의해 죽은 단종을 빗대는 듯이 보임)은, 그가 죽은 뒤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1498)의 발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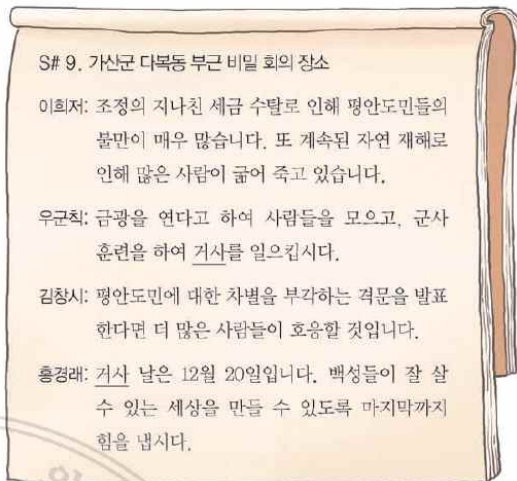
③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사농공상 모두에게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는 균전론을 내세웠다.

④ 중상적 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온 기행문인 <열하일기>와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⑤ 김육(1580~1658)은 1608년(광해군 원년)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된 대동법을 삼남(충청·전라·경상) 지방에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하였다.

29. 밑줄 그은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② 백낙신의 탄압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③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 ④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 ⑤ 선천, 정주 등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

정답: ⑤

* 홍경래의 난(1811)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1800~1863)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서북)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봉기였다(1811).

홍경래 등은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중소상인, 광부, 품팔이꾼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다. 반군은 가산에서 시작하여 한때 선천, 정주 등의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으나, 관군과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의 농민이 하나로 뭉쳐 탐관오리의 착취와 지방 차별에 반대한 농민 항쟁이었다.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뒤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① 청에 의해 진압된 국내 변란은 임오군란(1882.5)과 갑신정변(1884.12)이다.

② 세도정치기의 최대 농민 봉기인 임술농민 봉기(1862) 중 하나인 진주민란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③ 인조 반정(1623) 과정에서 공이 큰 이괄 2등 공신으로 한 것은 이괄의 난(1624)을 불러 일으키고 도성이 함락되고 인조는 공주로 피난가기 까지도 하였으나 도원수 장만이 관군과 의병을 모아 진압하였다.

④ 동학농민운동(1894) 때에 농민군과 정부는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여, 이후 농민군은 각지에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30.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백목전 상인이 말하기를, “서양목(西洋木)이 나온 이후 토산 면포가 소용이 없게 되어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연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의 물건 수입을 일절 금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에 오로지 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일성록』 -

- ① 청화 백자를 제작하는 도공
- ②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 ③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 ④ 저잣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 ⑤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정답: ⑤

* 조선 후기 사회·경제 상황

- 일성록과 연경을 왕래하는 상인이라는 것을 통해 조선 후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조선 후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다.

- 조선 후기에는 중인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詩社)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였고, 역대 시인의 시를 모아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시사로는 천수경 등의 ‘옥계시사’, 최경흠 등의 ‘직하시사’, 박윤목의 ‘서원시사’ 등이 있었다.

- 조선 후기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크게 증가하여 향유층이 확대되어 점차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때에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전기수(傳奇叟)가 등장하였다.

⑤ 조선 초기에는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1391~1466). 이 법의 주된 토지인 과전은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3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지난 달 조선에서 국왕의 명령에 의해, 선교 중이던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조선인 사제 7명과 무수히 많은 남녀 노소 천주교도들이 학살되었습니다. …… 며칠 내로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할 것입니다. …… 이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조선 왕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의 서한」—

(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돌을 개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면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한제국사」—

- ①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②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③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④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 ⑤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정답: ①

* 병인박해(1866)와 척화비 건립(1871) 사이의 역사적 사실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하자,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

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군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충남 예산군 덕산 소재)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와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화공으로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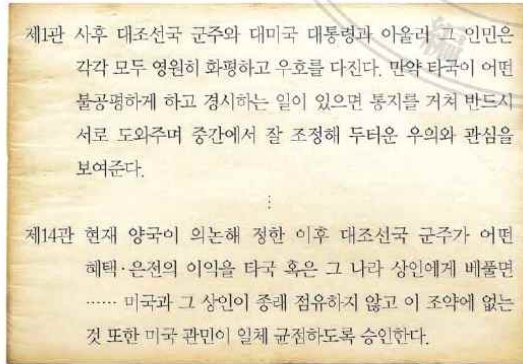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이 때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1871).

- ② 운요호 사건(1875)
- ③ 거문도 사건(1885)
- ④ 조불수호통상조약(1886)
- ⑤ 영남만인소(1881)

32.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②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 ③ 청의 압력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 ④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③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강화도 조약(1876.2) 이후 청은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을 집약한 책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도입된 황준헌의 <조선책략>이다.

이 <조선책략>은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 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1882년 5월, 신헌-슈펠트).

이 때 속방조회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과 청의 사대 책봉 관계는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속국이면서 내치외교는 자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조선과 수교한 모든 나라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여 최초의 구미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①, 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2)으로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개항되고, 후속 조치로 체결된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화폐 사용(부록),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이 허용되었다.

②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기하였으며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었다.

④ 러일전쟁 중 체결된 1차 한일협약(1904.8)으로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부임되었다.

3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심문자: 재차 기포(起包)한 것을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하였다고 한 까닭에 다시 일어났다 하니, 다시 일어난 후에는 일본 병사에게 무슨 행동을 하려 하였느냐.

진술자: 궁궐을 침범한 연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심문자: 그러면 일본 병사나 각국 사람이 경성에 머물고 있는 자를 내쫓으려 하였느냐.

진술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국인은 다만 통상만 하는데 일본인은 병사를 거느리고 경성에 진을 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하는가 하고 의아해한 것이다.

- 「(가) 공초」 -

- ①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 ② 독립 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세웠다.
- ③ 지부복궐척화소를 올려 왜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 ④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맞서 싸웠다.

정답: ⑤

*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전봉준에 대하여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녹두장군이라 불리우는 전봉준(1854~1895)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에 봉기(고부 봉기)한 이후,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과 제폭구민(부패한 관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한다)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1차 봉기: 무장 기포 -> 백산 봉기).

이후 황토현, 황룡촌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하며 승리와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출동하고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출동하자,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각지에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7월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며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10월 다시 봉기(2차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12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① 을사의병(1905~1906)의 의병장으로는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이 유명하다.

②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1864~1951)은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 창립, 독립문 건설을 주도하였다.

③ 최익현(1833~1906): 위정척사의 상징적 인물로서 강화도 조약(1876)으로 개항을 할 때에 지부복궐(도끼를 지고 앞드림)의 척화 상소를 올리며 반대하였다.

④ 이인영(1867~1909)은 정미의병(1907) 때 관동창의대장이 되어 양주에서 각지 의병과 연합군을 조직하였지만(13도 창의총대장) 아버지의 별세로 군사장 허위에게 지휘를 맡기고 낙향하였으며, 작전은 결국 실패하였다.

3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달의 역사 인물

국권 침탈에 저항한 구국 운동의 지도자

이준(1859년~1907년)

1896년에 한성 재판소 검사보로 임명되었다. 을사늑약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 운동을 펼쳤고, 안창호 등과 함께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②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였다.
- ③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 ④ 북간도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정답: ⑤

* 헤이그 특사 이준(1859~1907)

일찍이 법률관료로 일하던 그는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만민공동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며 보안회(1904), 헌정연구회(1905), 신민회 등의 애국 계몽운동단체 설립과 실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자 특사(이준, 이상설, 이위종)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사는 대한제국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되었으며 열강의 외면을 받았고, 이준은 분사(憤死)하였다.

①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 결성한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② 양기탁(1871~1938)은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과 함께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③ 조만식(1883~1950)은 1920년 8월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여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헤이그 특사의 일원인 이상설(1870~1917)은 1906년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일으켰다.

35.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환구단에서)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陪參)하였다. 예를 마치고 의정부 의정(議政)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제례를 마치었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부축을 받으며 단에 올라 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12장문(章文)의 곤면(袞冕)을 입혀 드리고 옥새를 올렸다. 왕이 두 번 세 번 사양하다가 친히 옥새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고종실록』 -

<보기>

- ㄱ. 관립 실업 학교인 상공학교가 개교되었다.
- ㄴ.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ㄷ.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 ㄹ.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이 세워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대한제국 출범(1897.10) 이후의 역사적 사실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 6월에는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하였고, 8월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표방하였다.

대한 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 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의 관립학교를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 ㉡ 개항(1876) 이후 개화정책에 따라 기기창(1883)에서는 서양무기를 제조하였으며, 육영공원(1886)을 세워 험버트 등의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 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36.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역사신문

제△△호 ○○○○년○○월○○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제2차 개헌을 통하여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된 국무회의가 임시 정부를 운영하며 임시 의정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시 의정원이 국무령과 국무원을 선임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동안 독재적인 상황이 나타났던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919	1923	1931	1935	1941	1945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국민 대표 회의 개최	한인 애국단 조직	한국 국민당 창당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8·15 광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변천

1919년 4월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임시헌장에서 의정원(입법부) 규정과 공화정 체제를 명시하였고 이후 임정 헌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1919년 9월,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와 서울의 한성정부를 통합하여 상하이에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차 개헌으로 의정원, 국무원, 법원의 3권 분립 체제와 대통령제를 갖추었다(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러나 임정의 외교 활동이 번번히 좌절되는 가운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 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임정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1923)가 열렸으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속에 회의는 결렬되고 많은 인물들이 임정을 떠났다.

1925년, 임정은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곧 헌법을 고쳐 내각 중심의

국무령제 개헌을 하였다(2차 개헌). 그러나 위상이 약해진 임정의 국무령에 주요 인물들이 나서지 않았고, 결국 김구가 1926년 말 취임한 후 1927년,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국무위원제)로 전환하여(3차 개헌) 이동녕과 함께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

한편, 침체기에 빠진 임정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1932년에 이봉창의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의거와 윤봉길의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를 이루어내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본군이 상해로 침공해오자 임정은 항저우로 이전하였다.

이후 김구는 김원봉이 주도하는 민족 혁명당의 임시 정부의 해체 주장에 반대하며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였다(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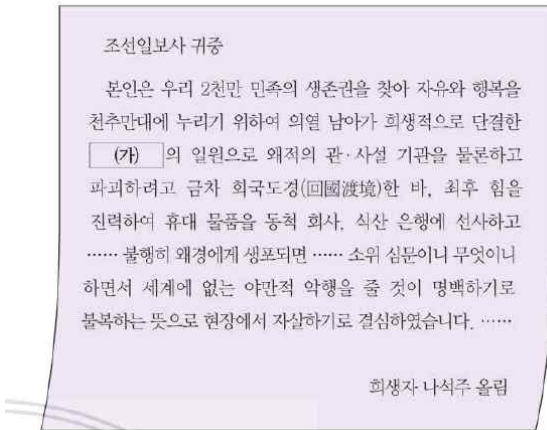
중·일 전쟁(1937)으로 일본군이 항저우로 침략하자, 임정은 호남성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사천성 충칭에 정착하였다.

임정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고(1940.5), 동년 9월 충칭으로 옮긴 임정은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동년 10월에는 주석 중심제 헌법을 채택하였다(4차 개헌: 김구 주석).

임정은 1941년 11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았고, 임정과 라이벌 관계였던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임정에 참여를 결의하여 1942년 7월에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하고, 1944년 4월에 임정은 5차 개헌을 하여 주석·부주석 지도 체제를 취하여, 민혁당의 김규식을 부주석에, 김원봉은 군무부장으로 임명하여 민족연합전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3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김구에 의해 상하이에서 결성되었다.
- ② 일제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 ④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정답: ④

* 나석주 열사가 활동한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 등을 처단하고,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식민지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 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 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 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 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 왕궁(1924, 김지섭), 식산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그

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1925년부터 의열단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 해방 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혁명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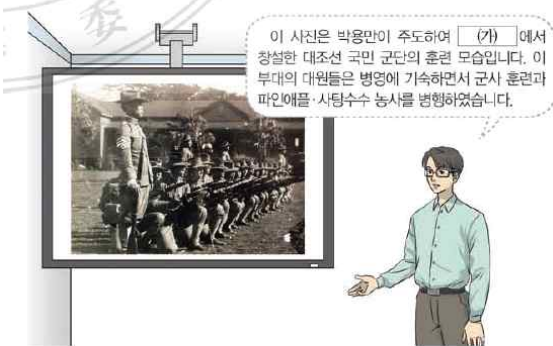
①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과(1932.1)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②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③ 애국계몽운동단체 대한자강회는 고종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산되었다(1907).

⑤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년 결성)는, 한일병합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 날조에 의해(105인 사건) 해체되고 말았다(1911).

38.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권업신문을 발간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②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 ④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⑤ 조선 청년 독립단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정답: ②

*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지역의 교민들은 학교와 교회 등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1910) 등의 자치 단체를 만들어 한인 사회를 발전시켰다.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주 교민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가장 큰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①, ③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운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업신문을 발행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다.

④ 1918년 중국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⑤ 일본으로는 주로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건너갔고, 1919년 월슨의 '민족 자결론'에 고무된 조선 청년 독립단(최팔용, 백관수 등)은 2·8 독립 선언을 선포하여 국내의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가)의 흉상입니다. 이 흉상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9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 사관 학교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만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신홍 무관 학교에서 독립군 양성에 합췄습니다. 또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대전자령 전투를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 ① 승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②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③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웠다.
- ④ 독립군 연합 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정답: ②

* 지청천(1888~1957)에 대하여

일본 육사 출신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지청천은 북만주에서 1931년 한국 독립군을 결성하고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되어 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1937년에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위협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을 때 (1940.9) 총사령에 취임하였다.

해방 후 우익 단체인 대한청년단을 이끌고 초대 무임소 장관을 역임하였다.

① 멕시코 한인교포를 이끌던 이근영은 메리다 지방에 승무학교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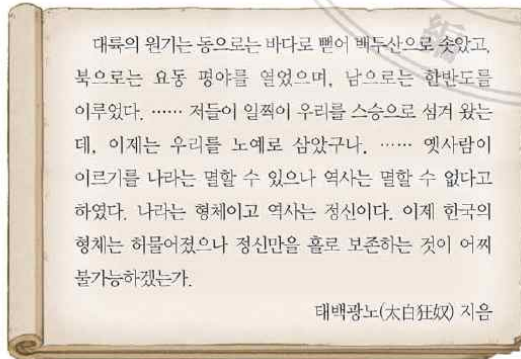
③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이자 임정의 군무부장을 지낸 노백린(1875~1926)은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1920년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웠다.

④ 김좌진(1889~1930)은 대한광복회, 중광단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였고 북로군정서를 이끌어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었다.

⑤ 여운형(1886~1947)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건국을 준비하였고,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였다(1945.8).

40.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진단 학회를 창립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 ②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③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독립 투쟁 과정을 정리하였다.
- ④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⑤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 사회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정답: ③

*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1859~1925)

호는 백암, 태백광노 등.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북학회 활동, 황성신문 주필 등의 언론 활동을 하였으며, 1909년 양명학에 토대를 둔 유교 구신론을 발표하여 유교개혁을 주장하였고, 장지연 등과 대동교를 창건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15년 신규식 등과 동제사를 결성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 1925년 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곧 서거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개항기 역사(1863~1910)를 다루며 국혼 사상을 언급한 '한국통사(1915)와 1884~1919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다루며 국혼, 국백 사상을 역설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즉, 그는 일제에 빼앗긴 것은 '국백'일 뿐이요, '국혼'이 살아있으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① 랑케의 실증적 사관에 영향을 받은 이병도(1896~1989)는 1934년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 설립을 주도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하며 실증주의 사학을 발달시켰다.

② 조선 '얼'을 강조한 정인보(1893~1950)는 문일평, 안재홍 등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들과 함께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⑤ 1930년대에는 백남운(1895~1974)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그는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41.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금반 우리의 노동 정치는 다만 국제 통상 주식회사 원산 지점이 계약을 무시하고 부두 노동 조합 제1구에 대하여 노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인하여 각 세포 단체가 동정을 표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결코 동맹 파업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 군인회, 소방대가 출동한다 하여 온 도시를 정동케 함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니 또한 원산 상업 회의소가 우리 연합회 회원과 그 가족 만여 명을 비(非) 시민과 같이 보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상업 회의소에 대하여 입회 연설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동아일보 -

- ①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성립되었다.
- ② 경성 고무 여자 직공 조합이 아사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③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봉에서 고공 농성을 전개하였다.
- ④ 전국 단위의 노동 운동 단체인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 ⑤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정답: ③

* 원산 총파업(1929) 이후의 노동운동

1920년대 일본 자본의 유입과 한국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렸다. 노동자의 반 이상이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으며, 영양 실조와 폐결핵 등 각종 산업 재해에 시달렸다. 또한 임금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본인의 절반 정도만 받을 정도로 민족 차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20년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노동 공제회를 결성하였다. 조선 노동 공제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하여 조선 노농 총동맹으로 발전하였다(1924). 이후 조선 노농 총동맹은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

1920년대 노동 쟁의는 임금 인하 반대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이 많았다. 19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노동 쟁의가 일어났다. 1926년 목포 제유 공장 노동자 파업, 1927년 영흥 흑연 광산 노동자 파업은 수개월간 전개되었다.

원산에서는 일찍부터 노동 운동이 발달하였는데, 1925년에 원산 노동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1928년 9월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에 있는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노동자의 요구 이행을 약속했던 문평 제유회사가 1928년 12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산노련은 1929년 1월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4개월 동안 지속된 총파업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후 노동 운동이 일제에 저항하는 반일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② 1923년 7월 서울의 경성 고무 공장을 비롯한 4개 고무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인하 반대와 악덕 감독의 파면을 요구하며 아사동맹(餓死同盟: 단식투쟁)을 조직하여 동맹 파업하였다. 이러한 아사동맹 결성 단식 투쟁은 동년 7월의 암태도 소작쟁의에서도 전개되었다.

③ 강주룡(1901~1932)은 1931년 평양 고무 공장 파업 때 을밀대 지봉 위에서 투쟁하였다.

⑤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문재철)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42.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중국 광시성(廣西省) 구이린(桂林)에 위치한 이 건물 터는 김원봉이 조직한 (가) 이/가 주도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는 중·일 전쟁 발발 직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창설되었고,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①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②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였다.
- ③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 작전으로 항일 전쟁을 벌였다.
- ④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었다.
- ⑤ 대한 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정답: ④

* 조선 의용대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으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김효삼, 윤세주 등의 다수 부대원들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태항산 전투,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김원봉과 남은 세력들은 임시정부(군무부장)와 한국 광복군(1지대장)에 합류하였다(1942).

① 간도참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제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1920.12, 총재 서일)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는 자유시 참변을 당하며(1921.6),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②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의 산하에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③ 남만주에서 결성된 조선 혁명당 산하에 1929년 결성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대한 국민회군(안무), 군무도독부(최진동), 신민단 등의 독립군과 연합하여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일본군 다수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50여명 사살).

43.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철이 조직한 것으로
(그들은) 대한 독립 군정서를 조직하여 본부를 밀산에 두고 북간도 일원에 걸쳐 활동을 개시하였다. 총지휘관 서일은 약 1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폭위를 펼쳤다가 자연히 해산된 상태이다. 김교헌은 최근 (가) 부활을 목적으로 일반 신도에게 정식으로 발표하고 사무를 개시함에 따라 각지에 산재한 군정서 간부원은 본부를 출입하며 무언가 획책하고 있다.

- 『불령단관계잡전』 -

- 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② 항일 무장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 ③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④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⑤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②

* 대종교에 대하여

을사 5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1863~1916, 1대 종사), 오기호(1863~1916)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였고, 2대 종사 김교헌(1868~1923)은 3대 종사 서일(1881~1921)을 단장으로 하여 중광단(1911)을 결성하였고, 대한독립선언(1918.11)을 주도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정의단, 군정부를 거쳐 북로 군정서(총재: 서일)로 개편되어 청산리대첩(1920.10) 등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간도참변(1920.10~12) 후에 서일은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모든 제 독립군 부대를 대한독립군단(1920.12)으로 편성하여 소련 자유시로 넘어갔으나 적군에 의해 무장해제와 이를 거부하는 독립군들이 참살당하고(자유시 참변, 1921.6) 토비들의 습격이 겹치자, “나라 땅은 유리쪽으로 부서지고 티끌모래는 바람비에 날렸도다. 날이 저물고 길이 궁한데 인간이 어디메뇨.”라는 글귀를 남기고 대종교 수양법의 하나인 조식법(調息法)으로 자결하였다.

①, 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신문으로 만세보(1906), 잡지로는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등을 간행하며 문화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고, 방정환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③ 미국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배재학당(1885)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힘썼다.

④ 북간도 지역의 천주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항일무장단체인 의민단(1919)을 조직하여 청산리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

44.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제1조 ①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을 예방 구금에 부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에 의하여 보호 관찰에 부쳐져 있는 경우에 보호 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 ②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최현배, 이극로 등이 투옥되었다.
- ③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 ④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⑤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정답: ②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정(1941)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에 이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를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①, ④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②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함흥영생여고의 한 학생의 한국말 대화를 취조하던 일제는 한글 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배후의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장지영, 최현배, 이희승, 이극로 등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때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獄死)하였다.

③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하 학생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진행시켰다(6.10만세운동).

⑤ 김구의 한인 애국단 소속 윤봉길은 1932년 4월, 상해 홍구 공원에서의 일본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시라카와 대장 등 많은 요인들을 살상하여 대한인의 기개를 떨쳐냈다.

4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학술 대회 안내

우리 학회는 일제 강점기 프로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민촌 이기영 선생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 발표 주제 ◆

- 카프의 결성과 민촌 이기영의 문학 세계
- (가)
- 민촌 이기영의 소설을 통해 본 근대 도시의 모습
- 민촌 이기영 문학의 위상과 남북 문화 교류의 가능성 모색



■ 일시: 2018년 ○○월 ○○일 13:00~17:00

■ 장소: □□ 대학교 소강당

■ 주최: △△ 학회

- ①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제와 문체
- ②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나타난 신체시의 형식
- ③ 소설 고향을 통해 본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
- ④ 금수회의록을 통해 본 신소설의 소재와 내용
- ⑤ 시 광야에 드러난 항일 정신과 작가의 독립운동

정답: ③

* 이기영과 프로 문학

이기영(1895~1984)은 일제 하 대표적인 프로 문학(사회주의 문학) 작가로 한설야, 박영희, 김기진 등과 함께 1925년 카프(KAFE: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결성을 주도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민촌’, ‘고향’ 등의 작품을 저술하며, 일제 하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총체성을 보여주었다.

① 이해조(1869~1927)는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에 근무하며 익명으로 많은 신소설을 발표하였다. 대표작 ‘자유종’ 등에서 여권신장, 신교육 등의 개화사상을 고취시켰다.

② 최남선(1890~1957)은 최초의 문학 잡지인 ‘소년’(1908)을 창간하고 최초의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였다.

④ 안국선(1878~1926)은 정치풍자적 신소설 ‘금수회의록’(1908)을 발표하여 동물들을 내세워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판매금지 소설이 되기도 하였다.

⑤ 의열단 단원이기도 한 항일저항 시인 이육사(1904~1944)는 남성다운 스케일로 초인의 도래를 염원하는 시 ‘광야’가 유명하다.

46.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제1조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일자구에 주둔하여 당해 자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위수 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지방 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육군 총참모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태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 사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②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③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전개되었다.
- ④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답: ②

* 위수령이 제정된 이승만 정부(1948~1960) 시기의 역사적 사실

위수령(衛戍令)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또한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도 서울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지자체장의 병력 청구시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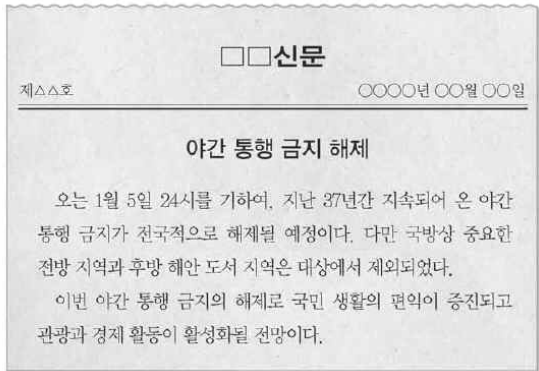
계엄령과는 다르게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 없는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으로 사용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와 1971년 10월 교련 반대 시위 때에 서울지역에,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에는 마산·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되었다(부산은 계엄령).

①, ③, ④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②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며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다.

⑤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결국 수백 명이 희생되며 진압되었다.

47.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한국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ㄴ.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ㄷ.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법령으로 가정 의례 준칙이 제정되었다.
ㄹ. 재건 국민 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부(1980.8~1988.2)는 언론통폐합(1980년 12월 언론기본법 제정), 정치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1981년 여권법 시행령 개정),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1983), 프로야구 출범(1982) 등의 국민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민들의 민주화 염원(대통령 직선제)을 무시하고 1987년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발표하여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결국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을 수용하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 ㉡ 박정희 정부는 당시 만연한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고자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 주도의 식생활 개선운동인 혼·분식 장려운동을 1967년부터 시작하여 10여 년간 실시하였다.

48.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 4. 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나)	3.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 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소·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다)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下記) 제 정당·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종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 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 정당·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정답: ③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선언들의 연대기

(나)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문(1945.12): 모스크바 3국(미·영·소)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가) 좌우합작 7원칙(1946.10):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 단독정부론에 맞서 김규식(중도 우파)과 여운형(중도 좌파) 등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고(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른 통일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 참가 후 신탁 통치 문제 해결, 유상 매상과 무상 분배 원칙하의 토지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다) 남북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서(1948.4):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이에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의하였고, 북한은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도 요구하여 1948년 4월, 두 회의를 포함한 남북협상이 개최되었다. 연석 회의를 통해서는 외국 군대의 즉각 철수, 외국 군대 철수 후의 내전이 발발치 않는다는 약속,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단독선거 부인 등에 합의하였다.

49.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외교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1. 군사 원조

-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중파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2. 경제 원조

-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 물자, 용역 설치 장비를 실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가운데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 발주할 것이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②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 ③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⑤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정답: ⑤

* 브라운 각서(1966)를 접수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교정책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당시의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문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미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월남에 파견하였는데, 1966년 2월 월남 정부가 한국에 병력증파를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증파에 앞서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행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브라운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한국방위태세의 강화 ②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현대화 ③ 보충병력의 확충 ④ 증파비 부담 ⑤ 북괴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⑥ 대한군사원조 이관의 중지 ⑦ 미국 국제개발처(AID) 차관 제동 ⑧ 대월 남 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⑨ 장병의 처우 개선문제 등이었다.

이후 베트남 경제 특수와 미국의 차관 제공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①, ②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8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였다.

③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4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50.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 ③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 ④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 ⑤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답: ③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노력

김영삼 정권 말의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제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생긴 1997년 말의 외환위기(IMF구제금융)를 금모으기 운동 등의 국민의 자발적 헌신과 산업 구조조정,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고통 분담 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조기(2001) 상환할 수 있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에도 힘을 써, 기존의 4대 보험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2000)를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펼쳐 금강산 관광 사업(1998)이 시작되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2000)을 이끌어내며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상봉 등에 합의하였고, 2002년에는 일본과 월드컵을 공동개최하여 한국의 이름을 드높였다.

①, ④ 노태우 정부 때에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② 박정희 정부 때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선언(1972)의 후속 조치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1972.11).

⑤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9월,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